https://www.ebn.co.kr/news/view/1484875

은행권의 미술품 투자 서비스 도입은 이처럼 불어난 예치금이 주식,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이탈하는 걸 막고 지속 관리하려는 전략이다. 투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투자자는 원금과 수익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고, 은행도 일정한 수익금을 나눠가진다. 지난해 속수무책으로 자금이탈을 지켜봐야 했던 은행들이 대안으로 아트테크를 내세우는 것이다.

https://blog.hanabank.com/1541